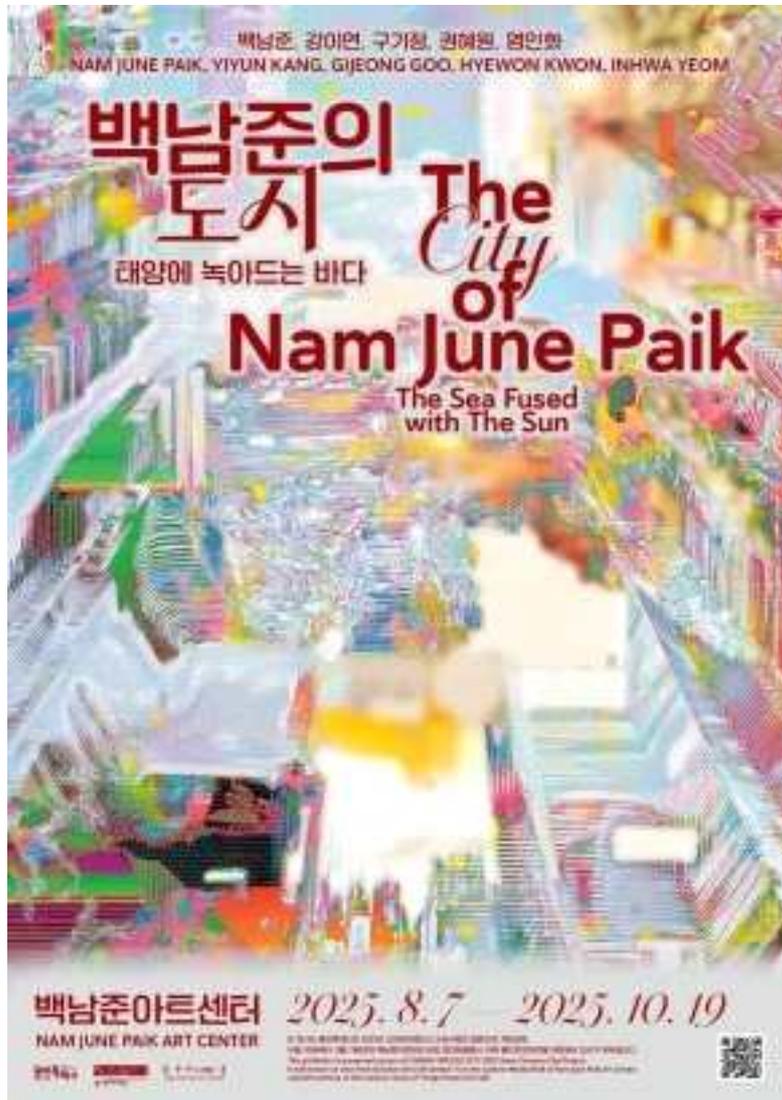


##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문의	전시: 조권진 학예연구사 t.031-201-8546 m.010-3437-3020		
	취재: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5. 8. 7	쪽수	총 18매

##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The City of Nam June Paik: The Sea Fused with The Sun



[전시 포스터]

## "백남준과 동시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탐구하는 '비디오 몰입' "

- 용인특례시와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이원 미디어 아트 전시...  
백남준,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 등 참여
- 백남준의 사유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 다층적 시공간의 초감각적 경험
-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으로 완전한 오디오비주얼 몰입 환경에서 경험하는  
미디어 아트

### ■ 전시개요

- 전 시 명: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 전시기간: 2025. 8. 7. ~ 2025. 10. 19.
- 전시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제2전시실
- 참여작가: 백남준(Nam June Paik), 강이연(Yiyun Kang), 구기정(Gijeong Goo),  
권혜원(Hyewon Kwon), 염인화(Inhwa Yeom)
- 전시작품: 총 작품 10점, 비디오 설치 및 비디오 스크리닝
- 전시기획: 조권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주최주관: 용인특례시,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2025년 8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전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백남준아트센터와 용인특례시가 '용인특례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용인특례시의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백남준아트센터와 용인포은아트홀 일대를 중심으로 이원화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선보이며, 스마트시티로서의 용인특례시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아트센터가 위치한 용인특례시를 '백남준의 도시' 로 설정하고, 백남준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를 선정하여 높은 몰입감을 자아내는 신작을 제작하여 · 공개한다. 이 작품들은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과 용인포은아트홀

의 외벽을 스크린 삼아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할 예정이다.

전시 제목인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는 아르튀르 랭보의 시 「영원」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백남준이 꿈꿨던, 비디오로 연결된 삶을 은유한다. 백남준은 이 시구를 통해 비디오 특유의 비선형적 시간 감각을 시적으로 포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용인특례시와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용인특례시가 디지털 아트 투 어리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백남준이 꿈꾸었던 기술과 예술,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8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가 끝나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미디어월에서, 이후 용인포은아트홀 야외에서 전시가 이어지며 연말까지 백남준의 도시를 탐험하는 여정은 계속된다.

## ■ 전시소개

*'비디오 몰입' 의 시대,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초월적 경험은 무엇인가.*

현대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뒤덮이며, 이미지와 소리의 정보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인터페이스처럼 존재한다. 빛으로 이루어진 이 비디오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몰입과 탈몰입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도시 속 미디어 환경은 백남준이 말한 '비디오리(videory)', 즉 인류의 이야기를 비디오로 기록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비디오 몰입' 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접속하거나 탈접속하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시공간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디오를 단순히 감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디오가 기록하고 생성한 인류의 역사가 축적된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 내면 깊이 스며들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형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우리가 생각보다 더욱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전시는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본질을 탐구했던 백남준의 사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시대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 내는 미디어의 다층적 시공간을 살아가며

1) "아르튀르 랭보는 베타맥스의 가장 훌륭한 대표자이다." 백남준, 「비디오 암호 코드」 (1979)

이를 예술로 구현하는 동시대 작가, 백남준을 비롯한 강이연,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를 조명한다. 대형 멀티 텔레비전 설치를 통해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한 백남준의 <M200>(1991), 몰입적 기술의 기원을 통해 인간 인식 방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권혜원의 <더블 비전>(2025), 지구 멸종과 소멸의 역사를 되짚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질문을 던지는 강이연의 <배니싱>(2022), 기후 위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타자의 존재를 새롭게 상상하는 염인화의 <솔라소닉 밴드>(2024(2025)),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풍경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실험하는 구기정의 <투명성 렌더링 장치>(2025) 등 참여 작가들의 작품은 비디오로 재구성된 세계로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로 얽힌 지금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 ■ 개막행사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 소개

전시의 개막일에는 참여 작가와 협업한 퍼포머, 동시대 음악가 이원석과 작곡가 선우 손킴이 직접 선보이는 퍼포먼스로 관람객은 보다 입체적으로 작품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참여 작가 구기정, 권혜원, 염인화 · 이원석이 진행하는 창작 워크숍도 마련되었다. 이어 9월 13일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승규와 전자 음악가 키라라가 선보이는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를 통해 음악과 시각이 결합된 또 다른 몰입의 경험을 선사한다.

### ● 개막공연: 2025. 8. 7. (목), 제2전시실, 15:00

#### <연금술적 그대를 연기하라>

##### 이원석, 동시대 음악가

KBS 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이자 예술단체 스튜디오페이지와 셋셋셋의 음악가이다. 기후 위기를 주제로, 인간, 다양한 사물들 인공지능 함께 이루어 내는 공동 연주를 선보인다.

#### <2025. 8. 7.>

##### 선우손킴, 작곡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를 넘나들며, 예술, 디자인,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개발한다. 자연에서 채취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해체하여 디지털 사운드로 재조립하는 과정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 작가 워크숍: 2025. 8. 15.—2025. 8. 30., 플렉스룸

#### 구기정의 <투명성 시각화 워크숍>, 8.15.(금) - 16.(토), 14:00 - 16:30

전시작품 <투명성 렌더링 장치>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식의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가능성을 작가와 함께 탐구하는 실습형 워크숍이다.

#### 염인화·이원석의 <AI-어쿠스틱 워크숍>, 8.23.(토) - 24.(일), 10:30 - 12:30

인공지능과 어쿠스틱 악기를 결합해 새로운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보는 실습형 워크숍으로 알고리즘, 센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리와 움직임, 기계와 사람의 관계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사운드 퍼포먼스를 만든다.

#### 권혜원의 <3D 입체시 워크숍>, 8.29.(금) - 30.(토), 14:00 - 16:00

19세기 '가상현실'이라 불렀던 3D 입체시를 소개하고 어떻게 양 눈의 시차가 입체감을 만들어 내는지 함께 이해한다. 이후 작가와 함께 스마트폰과 카드보드 뷰어를 활용해 자신만의 입체 사진을 제작해 보는 체험 워크숍이다.

### ●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2025. 9. 13. (토) 야외 뒷동산,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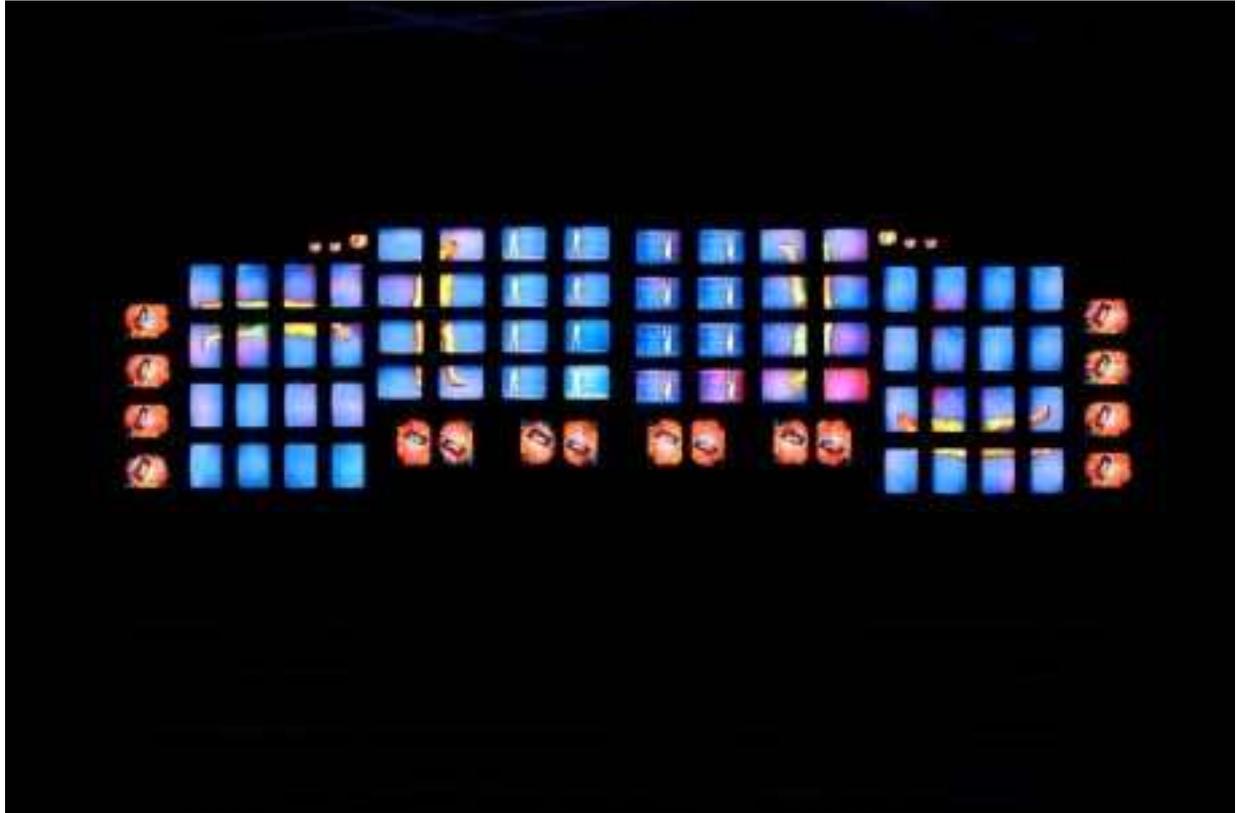
### **이승규, 미디어 아티스트**

이승규는 미디어 아트, 소음공학, 머신러닝 기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연구·창작하는 시스템 기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퍼포먼스 설계자이다.

### **키라라, 전자 음악가**

1990년대 영국 댄스음악과 2000년대 전자음악에 영향을 받은 전자 음악가 키라라는 섬세한 멜로디 조합으로 슬픔과 흥겨움이 공존하는 감정을 자아내는 음악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직접 작곡한 곡들은 컴퓨터와 미디 컨트롤러를 이용해 실시간 연주하는 라이브셋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 ■ 대표 작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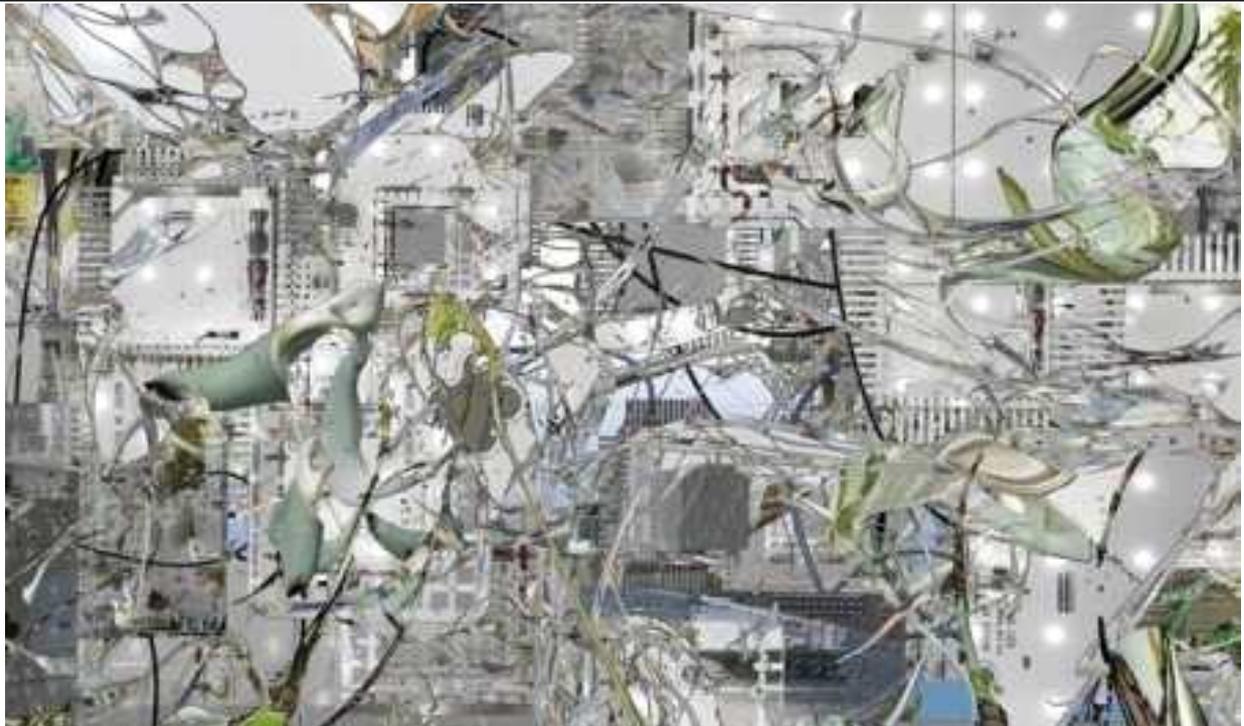
백남준, <M200>, 1991

300 x 960 x 50cm, CRT TV 모니터 86개, 2-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M200>은 86대의 CRT 텔레비전을 수직과 수평으로 배열한 매트릭스 형태의 작품으로, 1991년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연주 이미지와 그의 음악을 비롯하여 피아노, 메트로놈, 악보 등의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 시각화하고, <굿모닝 미스터 오웰>, <세계와 손잡고>,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의 주요 푸티지를 포함한 두 채널의 비디오를 보여준다.

백남준은 196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식의 대형 멀티 텔레비전 설치를 통해 비디오가 만들어 내는 시공간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처럼 공간의 배경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디오월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무드아트(mood art)' 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단순한 시각 장식으로 기능하거나, 나무와 물고기 같은 자연 요소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한국렌탈주식회사 소장품



구기정, <투명성 렌더링 장치>, 2025

200 x 250 x 300cm, 아크릴에 UV 프린트, 모니터, LED,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흙, 살아있는 식물

<투명성 렌더링 장치>는 여러 대의 커스텀 모니터가 설치된 대형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내외부가 토양과 살아 있는 식물로 둘러싸여 있다. 작가는 매크로 렌즈로 자연 풍경을 근접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질감이 살아 있는 유기적 형태로 디지털 가공해 출력하고, 이를 LED 기판 위에 층층이 병치하여 하나의 입체적인 시각 장면을 구성한다. 이 작품은 내부구조를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내어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롯해, 물리적 장치와 기술적 매커니즘까지 관객에게 직접 보여준다. 작가는 자연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디지털이라는 인공적인 매체로 전환하고, 다시 실제 식물과 토양을 덧붙여 자연과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상태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인) 자연의 혼합된 상태를 오가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관람객은 단순히 매끈하게 정돈된 시각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난 화면을 통해서 복잡한 기술적 구성과 제작 과정을 인식하도록 유도된다. 강한 LED 조명은 편안한 이미지 감상을 방해하면서도, 노출된 기술 구조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리가 화면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인공적 이미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보는 행위'를 넘어, 이미지에 내재한 기술적·물질적 구조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층위와 그 인식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다.



**권혜원, <더블 비전>, 2025**

가변 크기, 입체시 3D 단채널 비디오, 15분, 컬러, 다채널 오디오 사운드

권혜원은 <더블 비전> 에서 몰입적 기술의 기원 중 하나인 입체시 3D 기법을 통해 인간의 시지각 원리와 이를 구현해 온 기술의 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의 제목인 '더블 비전(Double Vision)' 은 입체시 3D(Stereoscopic 3D) 기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두 눈의 상이 제대로 통합되지 않는 병리학적 시각 증상인 '복시(double vision)' 를 함의한다.

권혜원은 현대의 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자기 반영적인 세계로 빠지게 하고, 몰입할수록 오히려 폐쇄된 세계에 갇히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작가는 H. P. 러브크래프트와 케네스 J. 스틸링의 SF 소설 『에릭스의 벽』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제작했다. 소설 속 '에릭스의 벽' 은 탈출이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미로' 를 의미한다. <더블 비전> 에서 백남준아트센터는 가상의 투명한 미로로 설정되고, 퍼포머들은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건물의 안팎을 넘나들며 보이지 않는 경계에 갇혀, 탈주하려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입체시 3D 기술은 시점 자체의 움직임을 조작함으로써 실제 공간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내고, 촬영된 장면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더욱 왜곡하여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 을 형성한다. 작가는 <더블 비전> 을 통해 현대인에게 과도한 몰입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관점과 인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각적 구조로부터 탈주할 가능성을 되찾기를 제안한다.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2024 (2025)**

가변 크기, 3D 퍼포머티브 장치-환경(PC기반 가상현실, 모바일 증강현실, 제작 악기), 19분 45초, 스테레오 사운드

<솔라소닉 밴드>는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이다. 이 밴드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도 '태양' 이 떠 있는 한 야외 공연을 계속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 밴드의 무대는 암석권, 생물권, 수권, 빙하권, 대기권 등 기후계를 순회하는 가상현실(VR) 환경으로 구현되며,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밴드 멤버들은 이 공간에서 공연 리허설을 펼친다.

관객은 증강현실(AR) 기반의 밴드 스탠드를 통해 '밴드 리드' 역할을 맡아 리허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밴드 스탠드는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3D 인터랙티브 그래픽 악보와 악기, 공연 스태프 간의 원격 통신 등을 통합해 시청각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퍼포먼스' 라는 개념이 지닌 다의성과도 연결된다. 즉, 이 밴드는 예술적 '공연' 이자,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행위' 이며, 기술적 시스템의 '성능' 을 실험하는 리허설이다. 관객은 이 모든 의미들이 교차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하며, 그 복합적인 층위 안에서 함께 여행 연습하게 된다.

2024년 서울문화재단 융합예술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



**백남준, <호랑이는 살아있다>, 1999**

단체널 비디오, 45분 27초, 컬러, 유성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체널 비디오, 11분 56초)

<호랑이는 살아있다> 는 1999년 한국의 새천년준비위원회가 백남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2000년을 하루 앞둔 12월 31일에 임진각에서 상영되었고 한국의 KBS, 미국의 ABC, 영국의 BBC 방송국 등 전 세계 77개국에 생중계되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여전히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이 백남준 특유의 현란하고 빠른 속도로 편집되어 전 세계로 전송되었다. 영상에는 기존에 선보였던 영상 외에 북한에서 제작된 '호랑이, 사자의 대결' 장면과 호랑이 민화가 나온다. 뉴저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조지 브레히트의 <모터사이클 선다운> 이벤트 장면, 래리 밀러의 곡을 연주하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 트레이시 레이폴드에 이어 백남준이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남준의 <삼원소> 앞에 나란히 서서 각자의 곡을 힘껏 연주한다. 한민족을 호랑이로 해석한 백남준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지난 세기를 뒤로 하고 한국인들이 새로운 전망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남준의 예술과 삶을 총망라한 45분 분량의 비디오에서 주요 푸티지를 발췌•편집해 선보인다.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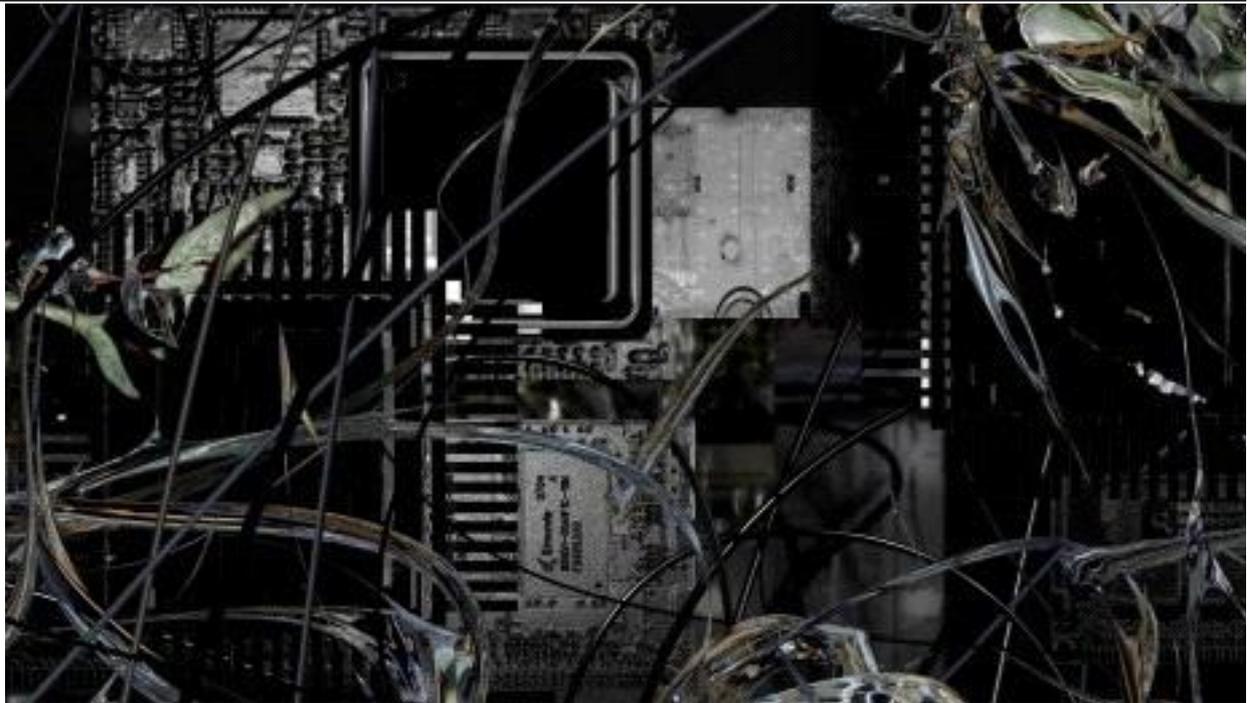


강이연, <배니싱>, 2022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1분 9초, 컬러, 유성

<배니싱>은 지구의 대량 멸종 역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다룬다. 과거 다섯 번의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처럼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일어났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멸종은 인간 한 종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은 '홀로세 멸종' 또는 '인류세 대멸종'이라고 불린다. 산업화, 도시화, 자원 채굴,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같은 인간의 활동은 생물종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멸종 속도를 가속화 한다. 그 결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의 급속한 쇠퇴를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의 소멸은 인간의 자연 착취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배니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초래한 생명의 상실을 시각적으로 환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화면에 펼쳐지는 장면은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멸종과 소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날개, 그 위를 유영하는 해골 형상은 한때 존재했으나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커미션



구기정, <투명성 시각 풍경>,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6분, 컬러, 유성

<투명성 시각 풍경>은 비디오 설치 작품인 <투명성 렌더링 장치>에서 생성된 시각적 결과물을 기반으로 구성된 대형 몰입형 비디오 작품이다. 작가는 '투명성'이라는 개념 아래, 디지털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프로젝션의 빛을 생성하는 장치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유기적 형태들을 비디오로 구현한다. 이 비디오는 단순한 이미지 재생을 넘어서, 기계의 물리적 구조를 시각적 층위로 병치시키고, 그로부터 유기적인 생명감을 가진 형상들이 출현하는 과정을 함께 제시한다.



권혜원, <우로보로스 엔진>,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7분 17초, 컬러, 유성

<우로보로스 엔진>은 360도로 천천히 회전하는 파노라마 풍경 속에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기보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하는 세계를 만들어 낸다. 회전하는 스크린은 때로는 정지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이어진 필름 스트립의 형태로, 때로는 빠르게 회전하며 초기 시네마 장치인 조이트로프(zoetrope)처럼 깜박이며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관객은 이 안에서 마치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인 우로보로스처럼, 끝없이 순환하는 고대 시간성을 경험하며, 동시에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인공지능의 반복적 피드백 루프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염인화, <솔라소닉 밴드 (Inst.)>, 2025**

360도 스크린 프로젝션 단채널 비디오, 8분 15초, 컬러, 유성

<솔라소닉 밴드 (Inst.)>는 <솔라소닉 밴드>의 연작으로, 기후 위기로 아직 공연되지 않은 악기들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보컬을 제외한 악기의 소리만을 포함한 연주곡의 형태를 뜻하는 'Inst.(instrumental)' 는 인간없이 존재하는 악기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영상 속 악기들은 태양열, 번개, 미세먼지 등 비인간적 기후 요소에 반응하며, 인류가 살아가는 기후계를 유명한다. 작품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공연 이전의 공연으로서 '기후 리허설' 을 상상하게 한다.

## ■ 참여작가 소개

### 백남준

---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 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음악으로 졸업 논문을 썼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 때부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필두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레이저 기술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가운데 1990년대 중반 뇌졸중이 발병했다. 하지만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계할 때까지 백남준은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

---

## 구기정

구기정은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3차원 렌더링 기반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고, 이를 영상과 다양한 설치 형태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기계, 자연 간의 경계를 실험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루트 0》(서호미술관, 2024), 《초과된 풍경》(광화문 광장, 2023), 《콘트롤로지》(홀 원, 2022)가 있다. 최근에 참여한 주요 단체전은 《세르펜티 인피니토》(푸트라 서울, 2025),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서울시립미술관, 2024), 《몰타 비엔날레: 고립-혼종의 풍경》(몰타 국립 고고학 박물관, 2024), 《다섯 발자국 숲》(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2024),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3), 《더치 디자인 워크: 준비 태세, 실행으로의 전환》(스트레이프 티, 아인트호벤, 2022),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아르코미술관, 2021), 《파리 포토: 환영 공간》(보부르 거리 24번지, 파리, 2018) 등이 있다.

---

## 권혜원

권혜원은 관점과 인식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장치들을 탐구하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드러내고 그 한계를 탐색하는 영상 설치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최근 작업은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현대적 도구 및 시스템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혜원은 제19회 송은미술대상(2019)의 대상 수상 작가이며, 주목할 만한 현대미술 작가에게 수여되는 영국 블룸버그 뉴 컨템포러리즈(Bloomberg New Contemporaries)(2011)에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우연작동》(타이페이 현대미술관, 2023), 《행성 극장》(송은, 2023), 《보이지 않는 영사기사를 위한 매뉴얼》(탈영역우정국, 2018)이 있으며 최근 주요 단체 전시로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 전시관, 2024),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3), 《아쿠아 천국》(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 《광대하고, 느리게》(경기도미술관, 2021),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국립현대미술관, 2021), 《내가 쏜 위성》(문화비축기지T5, 2021) 등이 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염인화

염인화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공학 연구자이며, 바이오브(<https://biove.io>)의 창립자이다. 작가로서 그는 확장현실(XR) 및 인공지능(AI) 기술과 공연 예술의 교차점에서 '3D 퍼포머티브 장치-환경' 을 창작한다. 이 매체는 바이오식민주의 및 기술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구성된 '소수자성' 과 더불어, (비)인간의 다양한 행동, 반응, 표현을 포용하는 무대처럼 기능하고자 한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제6회 VH 어워드》(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바젤 전자예술의 집 외, 2025),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 X》(문화역서울, 2024), 《넥스트코드》(대전시립미술관, 2024), 《행성공명》(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 《프로젝트 해시태그》(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2) 등이 있다. 2024년 현대자동차 후원 제6회 VH 어워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LG 아트센터 & LG 전자 후원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 강이연

강이연의 예술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작가는 인류의 진보가 더 이상 선형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을 소통과 실천의 강력한 플랫폼으로 삼는다. 그리고 관객의 감각과 지적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몰입형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집단적인 공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강이연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카이스트 경험디자인 랩(Experience Design Lab, XD Lab)의 디렉터로서 예술, 디자인, 기술, 과학의 융합을 연구와 실천을 통해 탐구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인탱글먼트(ENTANGLEMENT)》(신세계 더 헤리티지 뮤지엄, 2025), 《앤트로포즈(Anthropause)》(PKM 갤러리, 2021)가 있다. 또한 미국항공우주국(NASA)•구글과 협업한 유엔기후변화회의(COP28 Dubai)에서의 전시 《패시지 오브 워터》(2023), 시카고 공공예술 《아트 온 더 마트: 온리 인 더 다크(Art on the MART: Only in the Dark)》(2023), 제주비엔날레(2022), 《커넥트, 비티에스(CONNECT, BT S)》(2020), 선전 뉴미디어아트 페스티벌(2019),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A)(2016)의 전시를 비롯해 다수 주요 국제 예술행사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